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 I』 교과 [작문] 영역 내용 체계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의 성취 기준 “(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영역 내용 체계인 ‘글의 구성 원리’의 성취 기준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을 맺는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주제어 ‘평등’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의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나]는 모든 생물이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며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다]는 역차별의 예를 들어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마틴 루서 킹 목사 연설문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207쪽.
- [나] : 이규보, 「슬견설」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국어 I』, 비상교육, 18쪽.
- [다] : 나이절 워버턴, 「역차별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232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해설1(5점)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평등’이다. 이것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
- 문항해설2(5점)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1)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2)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하며, 3) 흑인과 백인이 평등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해설1(10점)

[가]의 주제어 '평등'을 중심으로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제어인 '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크기와 무관하게 살고 싶어 하며 죽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여러 생물들과 열 손가락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생명이 이렇듯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의 주제어인 '평등'의 관점에서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해설2(10점)

[가]의 주제어 '평등'을 중심으로 [다]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제어인 '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는 영국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는 여성의 수에 비해 남성 철학 교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역차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그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가]의 주제어인 '평등'의 관점에서 [다]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평등'이다. [가]는 평등의 관점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를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사람이 평가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흑인과 백인이 형제자매처럼 함께 손잡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낸 단어인 '평등'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 크기와 무관하게 살고 싶어 하며 죽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것은 마치 열 손가락 중 어느 하나를 깨물어도 똑같이 아픈 것과 동일한 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삶과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다]는 영국의 대학에서 많은 여성들이 철학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철학 교수가 월등히 많은 불평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다]에서 역차별의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차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평등을 위하여 실력이 떨어질지라도 직무 수행 능력만 있다면 여성 지원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역차별에 대해 국가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와 [독서] 영역 내용 체계인 ‘독서 상황과 독서의 방법’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와 사회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사회』 교과와 [(2) 공정성과 삶의 질] 영역의 내용 요소인 ‘(가)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성취 기준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와 관련을 맺는다. 이를 기초로 『법과 정치』 교과 [민주정치와 법] 영역 중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 및 도덕과 교육과정인 『윤리와 사상』 교과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영역의 주제인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사상’, [서양 윤리 사상] 영역의 주제인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통합하여 출제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가], [나], [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와 [다] 두 제시문의 주장을 근거로 [라]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행위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이해와 설명 능력의 평가는 제시문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에서는 법치주의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초기의 법치주의와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당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로 나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나]에서는 법의 목적이 질서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절대 권력인 국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법의 목적이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의 법은 그 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평가 능력의 측정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평가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둔다. [라]에서는 아이히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나]와 [다]의 주장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한 자신의 행위가 조직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나]에 의하면 법에 대한 복종으로 합법적 행위가 되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다]에 의하면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으며 정당하지 않은 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 자료 출처

- [가] : 손병로 외(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금성출판사, 27~28쪽.
- [나] : 박찬구 외(201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58쪽.
정창우 외(201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69쪽.
- [다] : 정창우 외(201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9쪽.
- [라] : 김선욱 외(201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금성출판사, 176쪽.
박병기 외(201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25쪽.

□ 평가 기준

○ 문항해설1(15점)

[가]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가]에서는 법치주의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초기의 법치주의와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당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로 나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에서는 법의 목적이 질서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정한 법에 대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복종해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에서는 법의 목적이 좋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위해 올바른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법은 그 내용이 정당해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면 11~15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면 6~10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였으나 [나]와 [다]의 주장 중 하나만 설명하면 6~10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였으나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1~5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 중 하나의 주장만 설명하면 1~5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지 못하면 0점

○ 문항해설2(15점)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라]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행위를 평가하여야 함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한 자신의 행위가 조직의 명령에 따른 법에 근거한 것으로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맞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천 이성이 부여한 도덕 법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으며 정당하지 않은 법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나]에 의하면 합법적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있지만, [다]에 의하면 올바르지 않은 법을 따른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채점 기준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11~15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지 않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6~10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고, [나]와 [다] 중 하나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6~10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혔으나, [나]와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1~5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지 않고, [나]와 [다] 중 하나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1~5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지 않고, [나]와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에서는 법치주의를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초기의 법치주의와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당할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나]는 법의 목적이 질서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절대 권력인 국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는 법의 목적이 선

한 인간을 만들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가는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법은 그 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 학살 책임자인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따른 것으로 의무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나]에 의하면 국가가 법을 만들기 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법은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고, 사람들은 그 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치의 법에 따른 아이히만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반면 [다]에 의하면 국가의 법은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일 때 비로소 법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결여한 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치의 법에 따른 아이히만의 행위는 합법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명령에 복종한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불과하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와 [독서] 영역 내용 체계인 ‘독서 상황과 독서의 방법’의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와 사회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사회』 교과와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영역 중 ‘(나) 세상 이해’의 성취 기준 “②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 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와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영역의 성취 기준 “(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를 통합하여, 통계 자료를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다]를 참고하여 [나]의 현상에 대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 [가]는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나]는 청년 실업이 만연함을 나타내는 통계이다.
- [다]는 실업의 영향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이동환 외(2014),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37쪽.
구정화 외(2015),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88쪽.
오영수·김진영(2014),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140쪽.
유종열 외(2014),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47쪽.
- [나] : 이동환 외(2014),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149쪽.
- [다] : 유종열 외(2014),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48쪽.
박형준 외(2014),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149쪽.

□ 평가 기준

- 문항해설1(20점)
[가]의 자료(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 취학을 증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용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면 16~20점
- [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나,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6~15점
- [가]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면 6~15점
- 그 외의 경우 답변의 논리성 혹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0~5점

○ 문항해설2(20점)

- [다]를 참고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

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를 참고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제시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이 모두 합리적이면 16~20점
- [다]를 참고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제시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 중 하나만 합리적이면 6~15점
- 그 외의 경우 답변의 논리성 혹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0~5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나]는 [가]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청년 실업이 만연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 의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한편,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취업을 늦추거나 고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는 노동 공급의 감소로, 대기업에는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구조적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의 현상들은 중소기업에는 여전한 노동 공급의 부족, 그 외에는 노동 공급의 과잉을 유발, 결국 청년 실업을 만연하게 한다.

[다]는 [나]의 현상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실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장래성이 있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부품·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